

진도군 공무원, 해양 관광개발 현장 견학



진도군 공무원들이 해양 관광개발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가 전남 서남해안의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는 등 진도군정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일 진도군 공무원 100여명은 진도군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

개발사업인 진도 대명해안리조트 건설 현장을 방문, 현장 관계자로부터 진도 대명해안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방향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견학은 타워콘도와 비치호텔 등 현재 진행중인 건설 공사

개군 이래 최대 규모 민자유치 사업 진도대명해안리조트 건설 현장 방문

감리단장으로부터 설명 듣고 집의 응답 후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도군은 공무원들에게 지역발전 위한 역점추진사업 현황과 해양관광도시로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자유치 마인드 향상을 위해 700여명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일원에 진도군 개군 이래 최대 규모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3,508억원이 투입되어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단계 사업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진도 대명해안리조트 사업은 1,007억씩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7월 현재 지상 10층 규모의 타워콘도와 9층 비치호텔, 오션빌리지, 웰컴센터 등 30%의 건설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군은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오는 2022년이 도래되면 전남 서남해안의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반조성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명품도시의 도약은 물론 관광객 유입으로 군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현장방문을 통해 해양관광개발사업과 함께 민간 투자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더운 여름 완도 청정바다로 가즈아”

스탬프 찍고 선물도 받고...여름 청정바다 특별 이벤트

완도군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름 청정바다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이벤트는 오는 7월 6일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및 관내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고자 기획한 이벤트이다.

특별 이벤트는 '완도관광 스탬프'로 여흥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완도 관광지 구석구석을 여행하면서 모바일 스탬프 13개 이상을 획득하면 부자유추첨을 통해 완도 특산품 종합세트(5만원 상당)를 상품으로 증정한다.

모바일 스탬프 부여란 인증지역을 방문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전자 도장이 찍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관광 어플로 완도군 관광지, 숙박, 음식, 특산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탬프 찍기를 통해 여행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여름 청정바다 특별이벤트와는 별도로 12월말까지 스탬프를 획득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탬프

획득 수에 따라 특산품을 선불하는 상시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 이벤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민인 완도군민을 제외한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모바일 어플 설치나 특별 이벤트 행사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담당(☎061-550-5431)로 문의하면 된다.

관광정책과 인병일 과장은 "청정바다 수도권 완도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깨끗하게 준비했으니, 스탬프 부여를 통해 완도 구석구석 여행하며 무더운 여름휴가를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7월 6일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관내 모든 해수욕장이 오는 7월 22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는 가족단위 피서객을 위한 대형 물놀이 시설을 준비하고 있어 청정바다에서 즐기는 해수욕과 함께 색다른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홀통 해수욕장서 해양레포츠 체험 즐기세요”

무안군, 오는 14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체험교실 무료로 운영



무안군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되며, 7월 넷째 주와 8월 첫째 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요일에도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해양레포츠 체험은 12세 이상 누구나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가 가능하며, 10명 이상 단체는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10-4252-6625, 061-450-4102)가능하다.

체험참가자는 개인별로 편한 복장을 위해 바다에 대한 두려움 극복과 해양레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창의 체험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교실은 윈드서핑, 카이트 날리기, 딩기요트 등의 해양레포츠 체험과 응급상황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 사고로 물

에 빠졌을 때 생존하기 위한 수영법을 배우는 생존수영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은 장흥군의 10개 읍면 60개 마을 1천 3백명을 대상으로 장흥군농업기술센터 15명의 전문지도사가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특히 여름철 작물별 생육단계에 적합한 핵심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최신 농업기술을 농업인들이 잊지 않고 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은 친환경 비 재배 중점 실천기술 및 버 후기 관리 요령, 발작물, 파수, 고품농업인 틈새 소득작목, 농약허용물질목록제외(PLS), 유용미생물 및 친환경 농자재 활용방법 등에 대해 이뤄졌다.

전문 지도사는 질의 응답식 강의를 진행해 농업인들의 평소 궁금증을 자유롭게 해결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김영모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름철 농민을 활용한 마을 현지로 찾아가는 여름철 영농교육이 농업인들에게 문제점 해결 위주의 현장중심의 교육이 될 것으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흥군,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추진

장흥군은 유기농산물 생산 기술과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소득작목 및 농촌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을회관, 유선각, 정자나무 등에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흥군의 10개 읍면 60개 마을 1천 3백명을 대상으로 장흥군농업기술센터 15명의 전문지도사가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특히 여름철 작물별 생육단계에 적합한 핵심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최신 농업기술을 농업인들이 잊지 않고 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은 친환경 비 재배 중점 실천기술 및 버 후기 관리 요령, 발작물, 파수, 고품농업인 틈새 소득작목, 농약허용물질목록제외(PLS), 유용미생물 및 친환경 농자재 활용방법 등에 대해 이뤄졌다.

전문 지도사는 질의 응답식 강의를 진행해 농업인들의 평소 궁금증을 자유롭게 해결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김영모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름철 농민을 활용한 마을 현지로 찾아가는 여름철 영농교육이 농업인들에게 문제점 해결 위주의 현장중심의 교육이 될 것으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 식중독 대비 활어회 판매업소 특별점검

여수시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패류 판매업소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수산물 특화시장과 교통 선어시장 등 활어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족관 빙각기 설치 여부 △갈기 도마 등 조리기구 위생관리 상태 △위생복 착용 등 종사자 위생 상태 △어패류 보

관 상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다.

특히 시는 세균오염추적기(ATP)를 이용해 현장에서 조리기구 오염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족관 물 검사도 실시해 비브리오팀균이 검출되면 관련법에 따라 수산물 폐기 등 조치를 취하고 종사자 위생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